월/요/광/장

양성우

천은사 가는 길

구례읍에서 남원방향으로 7㎞쯤 올라가다 보면, 지리산 골짜기에 천은사라는 절이 있다. 지금의 그곳은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 괘불과 아미타후불탱화를 비롯하여 고색창연한 수홍루와 일주문 등으로 인근의 화엄사와 함께 세상에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내가 머물던 1975년 그해의 천은사는 겨우 극락보전만 단청이 성한 채 높은 댓돌 위에 덩그렇게 서있었고, 나머지의 절집들은 퇴락할 대로 퇴락하여 비스듬히 기울거나 지붕마다 잡초들이 더부룩하게 자라던, 깊은 산골짜기의 숲 그늘에 묻힌 숨은 절이었다.

그곳에 나는, 그해 4월 어느 날 수사기관의 검은 차에 실려서 강제로 보내졌다. 당시의 권력을 거머쥔 사람들은 나를 감옥에 가두고 싶었겠지만, 그것보다도 더 효과적인 방법이 '현대판 유배'라고 생각했을까? 그런 까닭으로 나는 평소에 꿈도 안 꾸던 절 생활을 시작했다. 일주문 밖으로는 단 한 발자국도 내밀지 못하고 절 마당이나 그 언저리의 계곡과 숲으로 국한된 울타리 안에서 꼼짝 못한 채 그해 내내 절밥을 먹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것은 영락없는 귀양살이였다. 그해의 끝 무렵, 그 어둔 절 속을 남몰래 빠져 나와서는 구례구역에서 서울로 오는 밤 기차를 잡아타기 전까지는.

물론 내가 그곳에 끌려가게 된 데는 그만한 까닭이 있었는데, 그것은 내가 당시의 유신군벌정권을 비판한 '겨울공화국'이라는 시작품을 썼고, 그 시를 광주의 어느 구국기도회에서 직접 낭독했다는 죄(?)였다. 그로 인하여 나는, 천직으로 알고 있던 여학교 교사직을 스스로 내놓도록 권력으로부터 강요받았다. 그러나 나는 거기에 굴하지 않았으며, 그로 인하여 돌아오는 것은 핍박뿐이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권력의 검은 손들은 학교 당국자들을 앞장세워서 나를 모함하고 적대시하게 만드는가 하면, 동료교사들을 매수하여 나를 비방하게 만들었으며, 일부 순진한 학생들까지 동원하여 나를 감시하게 만들었다. 또한 힘깨나 쓰는 교직원들을 시켜서, 나의 해직조치에 항의하고 시위하는 학생들을 매질하고 협박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내가 파면장을 받기도 전에 이미 교무실의 내 책상과 의자마저도 치우게 했으니, 그것은 너무도 서글프고 안타까운 장면들이었다.

그뿐만이 아니라 당시 권력은 경찰을 풀어서 교문을 가로막고 담 밖을 에워싸는 것이 일과였으며, 교실복도나 계단은 물론이고 행정실이나 수위실에 이르기까지 학교 안팎을 온통 점령하다시피 했으니,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학교 안에 설자리를 아예 없애겠다는 뜻이 아니었겠는가? 그런 험난한 과정의 끝에 결국은 나에게 교사직의 파면결정이 내려졌고, 그 즉시 나는 학생들의 눈물바다를 뒤에 둔 채 수사기관원들의 손에 붙들려갔다.

그날, 내가 그들에게 개처럼 끌려가던 날의 광주천변에 내리는 봄 4월의 햇살은 유난히 밝고 따사로웠다. 그리고 내가 지나가는 공원길을 메운 군중의 함성은, 지금도 내 귓전에 선하다. 나중에 들어서 알게 되었지만, 그날 그곳의 행사는 나를 광주에서 영원히 쫓아내자는 관제 궐기대회였다지 않은가. 그렇게 나는 시작품 한 편으로 트집잡혀서 교직에서 파면되고, 고향에서 추방당했으며, 낯설고 어둑한 산골짜기의 가시나무 울타리 안에 갇힌 것이다. 그리고 그해 내내 노고단의 큰 비탈을 타고 내려오는 바람소리와 계곡물 소리와 스님들의 독경소리에 묻혀 살았다.

나를 감시하고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서 절 밖으로는 나가지 못할망정 나를 찾아오는 이들까지는 막지 못하던 차에, 주말이 되면 삼삼오오 그 먼 곳에까지 나를 찾아와 주던 학생들도 많았으니, 그녀들의 야무지고 정겨운 모습을 나는 지금도 잊을 수 없다. 이제는 중년이 훨씬 지나서 아이들을 결혼시킬 나이가 되었을 터이지만, 그녀들은 내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 나를 지키기 위하여 여러 달 동안 싸워 주었으며, 내가 지치고 외로웠을 때에 그 산속의 유배지에까지 몸소 찾아와서 위로해 주던 사람들이니까.

이미 아득히 지난 35년 전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엄혹했던 시절의 한 토막이 이렇게 선명하게 머리에 떠오르고, 그 위에 지리산 속의 천은사에까지 끌려가서 절 방에 갇혀 지내던 생각들이 자꾸만 오버랩됨은 무슨 까닭일까? 그 슬픈 봄날 하루, 내가 남의 손에 붙들려서 그곳으로 가던 길은, 혹시라도 앞으로 이어지는 내 삶의 악전고투와 천신만고를 예시하는 것이 아니었을까? 설령 그런 길이었을지라도 나는, 그때를 내 머릿속에서 지우고 싶지 않다. 그것은 내게는 줄곧 아물지 않는 상처가 되겠지만, 한 편으로는 잔잔한 그리움이 됨으로. 어쩌면 모든 운명을 건 험한 싸움의 과정도 이렇게 세월이 지나간 뒤에는 잊지 못할 추억이 될 수 있는 것일까? 〈시인·한국간행물윤리위원장〉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사 설

'무안 한중산단 활성화' 정부가 나서야 한다

무안 한·중 국제산업단지 개발사업이 위기를 맞고 있다. 국내지분 754억원 가운데 농협 다음으로 출자액이 많은 두산중공업(185억원)이 사업참여를 철회했기 때문이다. 두산중공업이 개발사업에서 빠져나갈 경우 출자사 구성이나 지분구조를 다시 짜야 한다.

국내 기업들이 잇따라 한중산단에서 발을 빼고 있는 것은 금융위기와 무관하지 않다. 금융기관들이 프로젝트 파이낸싱 참여를 꺼리면서 사업비 조달이 차질을 빚은 탓이다.

그러나 정부가 적극적인 지원의지를 밝히지 않고 있는 점 또한 한중산단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다. 거듭되는 지원요청에도 정부는 '기업도시 원칙에 따라 민간기업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원론적 입장만을 고수해 왔다. 투자계획 승인에 이어 해외경제무역합작구로 지정하는 등 지대한 관심을 기울여 온 중국 측과 대조되는 대목이다.

한중산단 조성사업이 예정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과 외국인투자지역 지정과 같은 제도적 뒷받침이 시급하다.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이 시행될 경우 국내 업체의 지방이전이 촉진돼 한중산단 입주기업 선정에 도움이 기대된다. 5년간 입주기업의 법인세가 감면되고 저렴한 가격에 부지 제공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는 외투지역으로 지정되면 외국 우수 기업 유치가 한결 쉬워진다. 특히 외투지역 지정은 투자에 소극적인 국내 금융권의 투자를 이끌어낼 호재로 작용, 한중산단 조성사업에 결정적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한중산단은 한중수교 이후 양국 간 최대 공동사업이다. 목표대로 300개 이상의 중국기업이 들어선다면 중국 자본과 한국 기술이 결합하는 이상적인 생산단지로 부상할 수 있다. 항공수요 창출로 무안공항 활성화라는 부수적 효과도 기대된다. 이제는 정부가 한중산단 조성사업에 나서야 할 때다.

광주 도심 공동화 심화 두고만 볼 건가

금남로와 충장로 등 광주 도심의 공동화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올 3분기 금남로 오피스 빌딩 공실률은 25.7%에 달했다. 충장로 상가의 공실률은 무려 29.9%를 기록했다. 금남로 오피스 빌딩 4곳 가운데 1곳이, 충장로 상가 3곳 중 1곳이 비어 있는 셈이다.

광주 도심 공동화는 상무, 첨단, 풍암지구 등 대규모 주택단지가 잇따라 새로 생기면서 도시가 다극 체제로 변하고 이에 따른 상권의 분산이 주요인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다 전남도청과 전남경찰청 등 공공기관의 이전은 도심 상권의 몰락을 가속화시켰다.

물론 도시의 규모가 커지고 다극체제로 변화되면서 생기는 도심 공동화는 일반적인 현상이라해도 광주는 너무 심하다. 무엇보다 도심 공동화를 불구경하듯 하고 있다는 게 문제다. 상권 분산과 공공기관 이전은 오래전부터 예견됐던 일로, 이에 대한 대비책을 세웠어야 했다. 그러나 광주시, 동구청 등 당국과 상가주민들은 팔짱만 끼고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충장로 축제 등 일회성 행사로는 공동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차라리 축제 예산으로 충장로를 현대적 감각에 맞게 리모델링하거나 금남로 주변 환경개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사람을 끌어들이는 게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차량통행이 잦지 않은 공휴일에는 금남로를 '차 없는 거리'로 만들어 다양한 행사를 마련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아시아문화전당도 도심 활성화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의문이다. 자칫 사람은 없는 썰렁한 조형물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지금부터라도 문화전당을 도심 활성화와 연계할 수 있는 세밀한 전략 세워야 할 것이다.

도심 공동화는 광주의 균형발전과 미래를 위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금남로와 충장로가 호남대표 상권으로 부활할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

기 고

윤병이

'돔구장' 오해와 진실

광주 야구팬들의 숙원인 야구장 건설의 큰 그림이 그려졌다. 박광태 광주시장은 지난 지난달 29일 서울 르네상스 호텔에서 김범일 대구시장과 정동화(주)포스코건설 대표이사가 참여한 가운데 돔구장 건립을 위한 양해각서를 공동으로 체결했다.

대구와 광주에 3만석 규모의 최첨단 돔구장이 들어서게 된 것이다. 오는 2013년 돔구장이 완공되면 설혹 경기 당일 악천후가 되더라도 팬스를 넘어가는 백구의 짜릿한 감동을 광주에서 느낄 수 있게 됐다.

특히 광주의 박시장과 대구의 김시장은 돔구장 건립이라는 공동 목표를 통해 지역화합의 새로운 장을 펼침으로서 동서간 갈등을 해소하는 홈런 한 방을 시원스레 날린 셈이다. 민자유치의 대상 기업이 국가 기간산업을 담당하는 포스코의 계열회사라는 것도 기업의 신뢰성이나 기업이윤의 사회환원이라는 측면에서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모든 일에는 시비가 있기 마련이고 이번 돔구장 건립도 예외는 아닌가보다. 양 지역의 '돔구장 동시 건립'이 축하와 축제의 감동이지만 일부에서는 우려 또는 도를 넘는 별의별 억측이 난무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일부에서는 본질을 외면한 채 정치적 해석을 해가며 이해득실을 따지거나 편승하는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다.

그 첫 번째가 막대한 비용과 운영비가 들어간다며 일반구장을 지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번 돔구장은 민자유치로 건립하고 운영권 역시 투자자가 담당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세금 투입이 전혀 없고 도시 브랜드 창출은 물론 고용효과까지 얻을 수 있는 강점을 갖고 있다. 오히려 일반구장을 지을 경우 막대한 건립비용과 매년 수 십억원에 달하는 운영비를 부담해야 한다.

다음으로는 시민의견 수렴이 없었다는 지적이다. 그럴듯한 명분이지만 사실을 호도케 하는 주장이다. 투자유치를 공개하여 진행하라는 투자유치의 생명이 비공개임을 모르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한 마디로 투자유치를 하지 말라는 것이다.

또다른 부정적 시각은 사업자에 대한 특혜의혹을 들며 마치 검은 거래라도 있는 듯한 음모론적 관점이다. 최소한의 이익조차 보장되지 않는다면 어느 기업이 투자에 나서겠는가. 기업유치를 위한 최소한의 보장마저 검은 거래로 치부하는 것은 투자유치를 하지 말라는 무책임한 주장이거나 반대를 위한 반대에 다름 아니다. 민자유치를 인센티브 없이 누가 투자를 한단 말인가.

이러한 주장은 결국 지역발전의 걸림돌이 되면서도 책임지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 잘못된 풍조를 만연케할 뿐이다. 야구장 건립의 본질은 '시민들이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속에서 야구경기를 즐기고 이러한 시설이 도시 발전에 어떠한 기여를 하는가'하는 점일 것이다.

돔구장은 단순히 야구경기만 하는 장소가 아니다. 스포츠와 레저, 관광이 함께 어우러진 복합 스포츠 문화타운이다. 도시의 랜드마크로 광주발전의 한 축이 될 것이다. 광주 돔구장에서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경기를 보는 날을 그려본다. 〈광주시 야구협회장〉

기 고

주동식

익스트림 스포츠와 F1 경기

최근 레저 스포츠 분야에서 두드러진 양상을 꼽는다면 스피드와 모험이 가져다주는 스릴을 만끽하는 종목들이 각광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시속 200Km를 넘나드는 속도로 파워보트와 제트스키 레이스를 펼치거나, 스키를 탄 채 점프를 즐기고, 가파른 계곡의 급류를 타고 내려오는 래프팅은 이미 오래된 전설이 되어 버렸다. 이제는 엉뚱(?)하게도 가파른 절벽에서 다이빙을 하거나 해남 진도 사이의 울돌목 같이 물살이 거센 바다에서 생존수영(survival swimming)을 즐기고, 공기통조차 메지 않고 자신의 호흡으로만 잠영을 하는 프리다이빙에 도전하는가 하면 사하라 사막에서는 생존 마라톤 대회까지 열리기도 한다.

관련 학계에서는 이러한 스포츠 종목들을 익스트림(extreme) 스포츠로 분류하고 이에 대한 연구가 매우 활발하다. 사회심리학자들은 현대인들이 익스트림 스포츠에 열광하고 있는 현상을, 기계적으로 반복되는 일상으로부터 탈출하려는 욕구가 그만큼 강한 결과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익스트림 스포츠를 지역 발전의 동력으로 받아들여 스포츠 관광 도시로 성장하는 사례들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뉴질랜드의 퀸스타운은 번지점프, 제트스키, 래프팅 등 익스트림 스포츠 상품 100여개를 개발하여 연 120만명의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으며, 미국 LA에 있는 매직마운틴은 스피드와 스릴을 즐기는 장소로서 이미 세계적으로 명성이 나 있다.

익스트림 스포츠 영역에서 가장 대표적인 주자가 다름 아닌 F1 자동차 경주대회다. 경주용 자동차들이 뿜어내는 굉음 속에 펼쳐지는 F1은 그 어느 스포츠 종목보다 빠르고 박진감 넘치며 많은 매니아를 지니고 있는 매력적인 모터스포츠대회다. 익스트림 스포츠의 중심으로서 올림픽, 월드컵과 함께 세계 3대 스포츠 이벤트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전남도는 2010년 10월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하고 있다. 바로 전남도에서 열리는 F1 그랑프리 대회 때문이다. 전 세계 200여 국가에서 6억 명이 TV로 시청하는 F1자동차 대회를 전남에서 개최함으로써, 세계에서 가장 빠른 스피드 스포츠 브랜드를 선점하게 된 것이다.

산업적인 면에서도 F1의 7년간 생산유발효과는 1조 8천55억원에 이르며 고용유발효과는 1만8천명으로 분석되고 있다. 영암 F1 경기장 주변에는 모터스포츠 R&D센터, 친환경 자동차부품 생산단지 등이 조성됨으로써 자동차와 카트, 오토바이, 자전거 등 모터스포츠 관련 산업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F1대회 관람객을 대상으로 한 한옥테마파크 조성, 체류형 관광코스 및 고품격 해양 스포츠 관광 상품 개발을 통해 관광산업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는 효과도 노려볼 수 있게 되었다.

전남도는 익스트림 스포츠 산업을 키울 수 있는 최적의 요건을 다양하게 구비하고 있다. 여기에다 국내에서는 최초로 내년부터 7년 동안 F1자동차 대회가 열리게 되어 레저 스포츠 산업을 키우는데 있어서 든든한 날개를 달게 되었다. 특히, F1경기장 주변 해상, 여수 해양엑스포 광장 등에 해상의 F1 그랑프리로 불리는 F1 파워보트, 스피드 제트스키, 수상스키 등 다양한 대회 개최와 상설 체험장 운영으로 해양 관광산업을 발전시키는 일대 전기를 마련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이를 발판삼아 타 지역과 차별화된 '익스트림 스포츠 산업의 핵심지역'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전략과 시책을 가다듬고 있다. 〈전남도 관광문화국장〉

길가에 내놓은 문방구 게임기,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

어린이들을 사행성 게임으로부터 보호하고, 용돈을 함부로 쓰거나 지나치게 게임에 빠져들게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작년에 법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지금은 학교 앞 문방구에서 어린이들이 그동안 이용하던 미니게임기를 할 수 없다.

그러나 아직도 법을 어기는 문방구와 수퍼가 참 많다. 그러다 보니 학교 앞이나 그 주변에서 문방구에 게임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하교하는 어린이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게임에 열중하는 모습을 쉽게 보는 게 일반적 풍경이다. 특히 이런 게임기들은 문방구나 수퍼들이 차도 옆 인도에 설치해 놔서 자칫 교통사고의 위험도 있어서 학부모들의 걱정이 크다. 지금이라도 학교 앞 문방구나 슈퍼에서 미니게임기를 설치한 곳이 있다면 게임기를 철거하고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김재형·광주시 북구 북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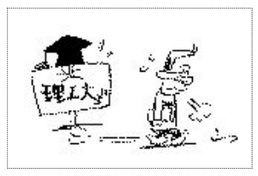
◇ 채택된 원고는 고료 드립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도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無 等 鼓

이공계 기피

성장론적 관점에서 볼 때 21세기를 이끌어갈 키워드는 기술과 혁신이다. 과학기술이 경제성장을 이끌고 혁신을 통한 사회 전반의 효율화가 국가의 역량을 좌우한다. 그 중심에는 '테크노 파워'(Techno Power)가 있다. 기술력과 경영능력을 겸비한 이공계 출신 경영자나 행정가, 정치가들이 각 분야의 변화를 주도할 엘리트 그룹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경제대국 중국의 성장에는 '과학적 발전관'이 자리 잡고 있다. 전기학을 전공한 장쩌민과 칭화대 수리공정학부 출신인 후진타오 주석은 국가경쟁력의 핵심을 과학기술에 놓고 전문인력을 양성했다. 차세대 지도자들도 이공계 출신자들로 대체된 상태다.

중국만이 아니다. 일본의 하토야마 총리는 도쿄대 공대를 졸업했고, 물리학을 전공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를 비롯한 상당수 국가의 지도자들도 이공계 출신이다.

우리나라의 현실은 사뭇 다르다. 정부 부처 차관급이나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국회의원 중 이공계 출신은 10%에도 못 미친다. 공직만이 '좁은 문'은 아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과학자나 엔지니어가 존경과 대우를 받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지 않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이공계 기피현상은 날로 심화되고 있다. 최근 3년간 전국 국공립대에서 2만 명에 가까운 학생이 자퇴나 전학으로 이공계를 떠났다. 우수한 이공계 인재들은 고시학원으로 몰려들고 있다. 광주·전남도 예외는 아니다. 전남대와 순천대, 목포대, 목포해양대 등 4개 국립대에서 3년간 3천115명의 이공계 학생들이 자퇴하거나 비이공계로 전공을 바꾼 것으로 나타났다.

이공계 엑소더스는 과학·기술 분야의 인력난을 불러와 미래 국가발전과 기업성장에 큰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기술과 경영이 접목된 '테크노 리더십'이 요구되는 시대, 이공계 인력의 체계적인 양성과 그들에 대한 파격적인 처우 개선 대책이 절실한 시점이다.

/정후식 사회1부장 who@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논설실장 丁在炫 편집국장 曺庚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안내		사회2부	2200-692	경영지원국	2200-511
〈대표 FAX	222-4918〉	〈FAX	227-0118〉	〈FAX	222-8005〉
편집부	2200-672	문화생활부	2200-661	광고마케팅국	2200-521
정치부	2200-634	여론매체부	2200-679	〈FAX	227-9500〉
경제부	2200-641	체육팀	2200-663	디자인	2200-536
사회1부	2200-612	사진부	2200-691		
〈FAX	222-4267〉	조사부	2200-571		

문화홍보국	2200-541
〈FAX	222-0195〉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7-9500〉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